



# Kodak

코닥 스테판 그린 아·태 지역 사장

한국코닥 루이스 레베그 신임사장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베그, [www.kodak.com](http://www.kodak.com))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교호텔에서 2009년 키오프 미팅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취임한 코닥 아·태 지역 스테판 그린 사장도 내한, 한국코닥의 신임 루이스 레베그 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코닥의 아·태 시장 및 한국 시장에서의 2009년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시장은 특유의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 레베그씨가 한국코닥 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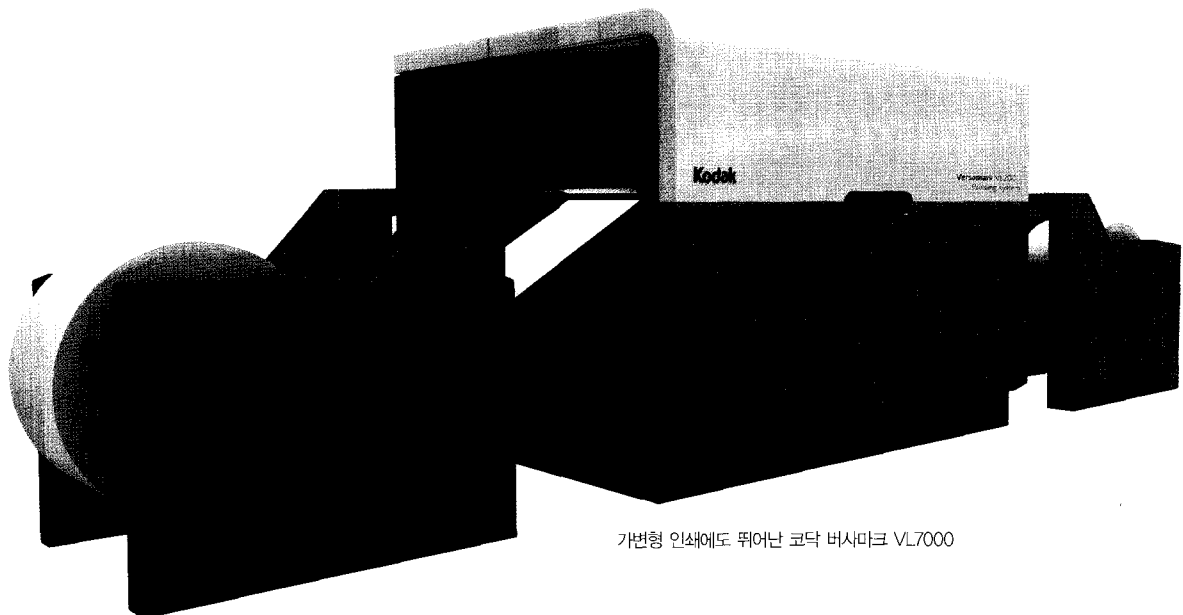
스테인 그린 코닥 아·태지역 사장 : 루이스 레베그 사장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이미 일본 코닥의 사업개발 관련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다양한 코닥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루이스 레베그 사장은 코닥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식견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서 요구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코닥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는데요. 소감과 앞으로 경영 전략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또한 국내 내수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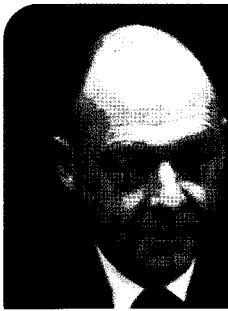
루이스 레베그 한국코닥 사장 : 세계적인 여건에서 본다면, 코닥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업계에 비즈니스를 수행했던 시기 중에서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가장 도전받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구의 경제위기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역내로 수입되는 인쇄 장비 등에도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태지역의 고객들이 디지털 CTP솔루션과 디지털프린트 기술, 자동화 워크플로의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닥은 견고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업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시장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인쇄기업간에 다소간의 합병이 일어나는 움직임도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 고객들의 이익의 창출과 함께 신규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인쇄 솔루션 시장은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수년간 한국 디지털 인쇄 부문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루이스 레베그 한국코닥 사장 : 코닥은 전통적인 인쇄환경 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된 인쇄환경에서도 최적의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응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대,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매출 기회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스위스에서 새로운 Drop On Demand 잉크젯 기술이 적용된 코닥의 버사마크 VL 시스템을 출시한 것은 그 좋은 사례



가변형 인쇄에도 뛰어난 코닥 버사마크 VL7000



스테판 그린 코닥 아·태 지역 사장

코닥의 핵심전략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 그리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생산 환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환경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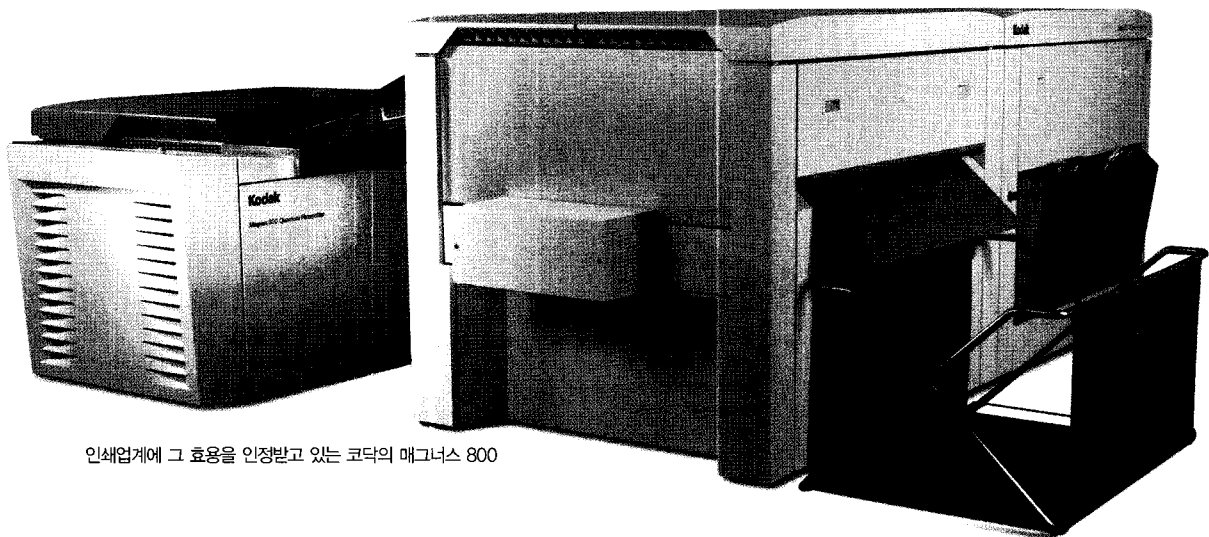
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디지털 인쇄시장에서 지난 18개월간 한국코닥은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오프셋인쇄 물량의 감소와 디지털인쇄로의 전환은 한국 시장에서도 유효할 것이며 한국코닥은 올해 여름에 흑백 및 컬러 디지털인쇄기의 신제품 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글로벌한 경기 침체에서 코닥이 갖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스테판 그린 코닥 아·태 지역 사장 : 코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계획이란 매우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거나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닥은 최근의 시장상황에서도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코닥은 고객을 위해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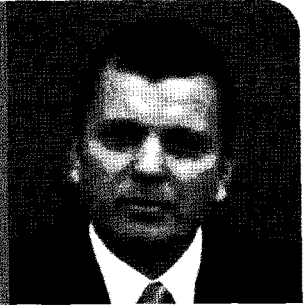
200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코닥의 경영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스테판 그린 코닥 아·태 지역 사장 : 코닥의 핵심전략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닥은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 그리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생산 환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환경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코닥은 상업인쇄, 신문인쇄, 패키징인쇄, 데이터센터와 기업용 솔루션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솔루션과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영업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고객을 원활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도 전력을



인쇄업계에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는 코닥의 매그너스 800

현재 코닥은 견고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업체로 인정 받고 있으며 한국시장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인쇄기업간에 다소간의 합병이 일어나는 움직임도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루이스 레베고 한국코닥 신임 사장

기울이고 있는데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China Print와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Pac Print에서도 고객사와 코닥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닥의 채널들이 스스로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닥의 지원과 투자는 계속될 것이며 실제로 코닥이 전세계에 걸친 상업용 인쇄와 일반 소비자용 프린터 사업부의 일부를 통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혁신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코닥의 잉크젯 지적재산권과 코닥 고유의 '스트림(Stream)' 잉크젯 기술입니다.

코닥 제품의 강점과 제품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스테판 그린 코닥 아·태 지역 사장 : 코닥 기업과의 특화된 차별점 중의 하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그리고 플렉소 기술 전반에 오프셋 클래스(Offset class)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프셋 클래스(Offset class)는 복합적인 인쇄환경과 순수 디지털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인쇄를 평가할 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척도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프셋은 최고수준의 신뢰성, 생산성, 운영비용 그리고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인쇄를 통한 생산의 시급적 역할을 해왔으며 코닥은 디지털 인쇄가 각각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프셋 클래스의 기준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 더해 코닥은 인쇄서비스 공급자가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제공, 인접시장으로 확장하고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디지털과 컨벤셔널 솔루션 모두에 광범위한 제품군을 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닥은 고객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자동화 및 통합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시장 선도자라고 자신합니다.

최근 코닥은 '플렉소 인쇄'와 관련이 있는 '누프로(NuPro)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패키징 인쇄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키징인쇄 영역에 대한 전망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스테판 그린 코닥 아·태 지역 사장 : 코닥은 패키징인쇄 분야가 고객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패키징인쇄 분야에서도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수십만 종류의 신상품들이 출시되고 실제로 그 대부분은 특수 포장을 요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상거래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간 포장 배송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닥은 오프셋에서부터 플렉소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조원에 달하는 패키징 분야에서 코닥은 FLEXCEL NX 디지털 플렉소그래픽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국제산업전과 어워드에서 수상을 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또한 누프로의 자산을 인수한 것도 코닥의 플렉소그래픽 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코닥은 누프로테크놀로지를 인수, 패키징 부문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